잘못된 스승과의 인연이 불러온 참변



원웅 스님의 경전산책

⑱ 앙굴리마라경1

우리들 인생 속에서 나를 바꾸게 했던 이들과 만났을 때를 확실히 기억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 대부분이 모른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를 만나 내 인생이 더 윤택해지고 빛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존경의 마음이 드는 분, 바로 스승이다. 불자에게 부처님은 위대한 스승이다. 스승이라 불리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앙굴리마라,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드는 살아있는 악마의 화신인 그를 제도한 부처님의 이야기는 〈한글대장경〉12권인 〈불반니원경〉에 있는 〈불설앙굴계경〉 pp297~305와 〈앙굴마라경〉 pp323~465에 등장한다. 아함부에 속한 경전들을 소책자로 만들어 불자들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했던 편집자의 의도가 보이는 경전 중에 하나다.

사위성 북쪽 살나마을에 살던 발타라는 남편을 잃고 홀로 일체세간현(一切世間現)이란 똑똑하고 총명한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다. 세간현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응용력이 뛰어나 수십, 수백 개를 깨달아 알며 다른 이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일어주는 능력이 뛰어났다.

12살에 바라문 마니발타라에게 출가하여 그의 수제자가 되었다. 그런데 스승의 젊은 아내가 이 총명한 제자에게 연모의 정을 품고 있다가 스승이 왕의 초청을 받아 떠나며 세간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갔다. 스승의 부인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평소에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하며 예절을 잊어버리고 세간현을 유혹했다. 놀란 세간현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옷을 뿌리치며 그 곳을 떠났다.

수치심과 모욕을 느낀 것은 세간현이었지만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스승의 아내는 거절당한 것이 억울하고 분하여 남편이 오는 시간에 맞추어 머리를 풀어헤치고 목을 매는 시늉을 했다. 마침 도착한 스승은 아내에게서 세간현이 자신을 성추행하였고 그 부끄러움에 죽으려 한다는 것을 듣고 마음속에 불같은 분노가 일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총명하고 착한 제자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증오심으로 복수를 결심한다. 스승의 아내를 욕보인 죄를 사면받으려면 사람 천 명을 죽여 그들을 하늘에 태어나게 해주고, 그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가져오면 너도 하늘에 태어나게 해준다고 한다. 세간현은 그건 절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스승을 거역할 수 없어 그렇게 허무하게도 살생악귀로 변하게 된다. 그 길로 거리에 나가 예리한 칼로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양심에 가책을 느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치광이 살인마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순수하게 잘생긴 얼굴과 친절한 말솜씨에 홀려 다가갔다가 여지없이 살해를 당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사위성 전역에 퍼졌지만 사람들은 그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나갔다. 이제 드디어 999명의 손가락을 모았을 때, 마침 어머니가 자신의 사랑스런 아들이 미쳐서 세상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피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찾아오고 있었다.

마침 탁발 나갔던 제자에게 사위성이 발칵 뒤집힌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이 사위성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시면 앙굴리마라(사람을 죽이고 손가락 자르는 악마)를 만나니 절대 가시면 안 된다고 말렸다. 그 앙굴리마라와 어머니가 딱 마주쳤지만 아들은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지막 손가락이라는 생각에 극도의 흥분을 한 상태였다. 일촉즉발, 부처님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신통력으로 앙굴리마라가 아무리 걸어도 다가올 수 없는 거리를 만들어 버렸다.

'거기 그만 멈추시오, 나는 앙굴리마라다. 너의 손가락을 내게 다오, 누구든 내 이름만 들어도 놀라서 죽는데 하물며 나의 얼굴을 보고도 살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보시오, 이제 멈추시오. 그대는 하늘사람인가, 바람인가 어찌 이리 빨리 갈 수 있는 것이오. 제발 그만 가시오, 이제 더 이상 나는 못가니 손가락을 주시오.'

부처님 뒤에서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가 부처님 앞으로 나갔다. 아들은 어머니를 알아보았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업보해탈로 세 가지 소원 이루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⑰ 인생의 원동력

선지식으로부터 "누구나 시시각각 소원성취한다"는 말씀을 들은 후, 나의 세 가지 소원, 즉 학교 공부, 대인관계, 마음 안정 등 세 가지의 난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은 참이 아님을 알았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난제라고 판단한 것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난제가 정말 난제가 아닌 내 분별이요 착각이라고 깨친다면, 그것은 이미 난제가 아니고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난제가 실은 난제가 아니요 내 분별일 뿐이며, 그 분별이 실은 착각이라 여기는 수행을 어떻게 하여야 쉽게 할 수 있을까? 쉽게 수행하는 방법이나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수행을 쉽게 하여 내 숙원을 성취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여러 사람을 만난다. 여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늘 산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 관계를 가지게 되면 마음속에 자연 어떤 느낌 또는 어떤 인상을 심게 된다. 그런 인상들 중 강력한 쇼크가 동반되어 심어진 인상(전생이든 금생이든)을 업보(業報)라 한다. 이런 업보가 모이면 장애를 이루게 되는데 업보가 모여 장애를 나타내는 당체를 업장(業障)이라 한다. 그런데 업보 중에, 살도음망(殺盜淫妄)의 관계로 맺어진 업보는 나쁜 업보도 있는 모양이다. 계정혜(戒定慧)의 관계로 맺어진 업보는 좋은 업보도 있는 모양이다. 선지식께서는 언제인가 공부를 방해하는 업보와 함께하지 않는 것, 또 공부에 도움을 주는 업보와 함께하는 것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 말씀이 생각났다.

"아들과 남편을 가능하면 한 집안에서 살게 하지 마시오."

"어째서 아들과 아버지를 떼어놓고 살아야 하는가요?"

"아들과 남편은 전생에 좋지 않은 인연을 맺어 부자지간이 된 것이요. 이런 나쁜 업보가 한 집안에서 살게 되면, 서로에게 나쁜 정신적 파장을 보내게 되므로 두 사람 다 일이 잘 아니 풀리게 되어 있소."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는 부자지간도 원수로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까운 가족에 오히려 좋은 업보보다 나쁜 업보가 더 많은 것이요."

이렇게 선지식께서는 우리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부부, 부자, 형제 등 사람들은 이런 가족을 가장 친한 관계로 생각하는데 마음 닦아 밝아진 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친하다는 부부 부자 형제 등 가족은 겉으로는 서로 돕는 것 같이 보여도 속마음은 서로 돕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상당한 방해를 하는 존재라고 한다.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는 결정적 방해까지 한다는 것이다.

효과적 수행을 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면 업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들은 출가는 하는 것이 아니던가? 달마대사는 이를 외식제연(外息諸緣)하라 하시지 않았던가? 선지식의 말씀대로 가족과 떨어져 있으며 선지식과 함께 지낼 때 놀랄 정도로 부처님께 바치는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선지식께서는 "아버지를 싫어하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라. 아버지를 싫어하는 마음이 잘 아니 바쳐지는 경우, 아버지를 향해 금강경 사구게(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 비상 즉견여래)를 수지독송하여라.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그분이 부처님께 신심발심하여 복많이 짓기를 발원하여라"고 하셨다. 출가와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싫은 생각이 차츰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아버지에 대한 싫은 생각이 사라짐과 동시에 학교 공부가 지겹게 싫다는 생각, 싫은 친구에 대한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망연을 '이 뭣고'로 여의자

〈忘緣〉

백장 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신찬 선사는 계현 대사에게 동진 출가 한 후 경학(經學)에만 몰두했다. 참선에는 뜻이 없어 백장 선사를 찾아가 참선 정진 끝에 견성오도(見性悟道)한 후 은사인 계현 스님을 다시 찾아가자, 스승은 "너는 나를 버리고서 여러 해 동안 소식이 없더니 그동안 무슨 소득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신찬 선사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인데 얻을 것이 무었이 있겠습니까?" 하니 스승은 그 뜻을 알아 듣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날 스승은 신찬 대사에게 목욕물을 데피게 하고 등을 밀어 달라고 하였다.

신찬 대사는 스승의 등을 밀다가 호호법당(好好法堂) 불무영험(佛無靈驗)이라, 즉 "법당(法堂)은 훌륭한데 영험(靈驗)치 못하군"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스승이 뒤를 돌아 보았다. 그러자 불무영험(佛無靈驗) 유방광(有放光)이라, 즉 부처는 영험치 못하나 방광(放光)은 할줄 아는군"하며 거리낌 없이 또 중얼 거리니, 스승은 무엇인가 가슴에 와 닿는 느낌이 들며 신찬 대사가 범상한 인물이 아님을 짐작케 되었다.

한날 스승이 경서를 열심히 보는데, 벌 한 마리가 방에 들어와 창문으로만 나가려고 탕탕 몸을 부딪히며 애를 쓰니, 공문불긍출(空門不肯出) 투창야대치(投窓也大痴) 백년찬고지(百年鑽古紙) 하일출두기(何日出頭期) 이라. 즉 "아, 어리석은 벌이여! 활짝 열어놓은 저 문은 어이 마다하고 굳게 닫힌 창문만 안타까이 두드리고 있는고. 백년을 경서만 뚫어지게 본들, 어느날 깨치기를 기약하겠는가"하고 읊으니, 보든 경서를 덮어놓고 "나는 네가 나가서 허송세월을 하고 돌아온 줄 알았더니 그 동안 누구에게서 어떤 법을 배웠느냐?"고 되물었다.

"한 생각 망념 올라오는 즉시 알아차리고 '이 뭣고' 하면 육진(六塵)을 벗어나니 이것이 참 수행의 핵심이 되는 것"
중생은 착각의 아상 때문에 집착의 업 속에서 헤매는 것

"백장선사 법좌에서 참선 수행으로 깨닫고 왔습니다" 하니 스승께서 "오, 기특한 일이로다. 네가 비록 내 상좌이나 공부로는 나의 스승이니 백장 선사를 대신해서 나에게 불법을 설해다오"라고 했다고 한다.

신찬 대사가 법상에 올라 영광독로(靈光獨露) 형탈근진(逈脫根塵) 체로진상(體露眞相) 불구문자(不拘文字) 진성무념(眞性無染) 본자원성(本自圓成) 단리망연(但離妄緣) 즉여여불(卽如如佛)라고 설했다.

"신령스런 빛이 홀로 들어나 육근육진을 벗어나 본체가 참모습을 드러내니, 문자에 의지하지 않네. 참마음 성품은 본래 오염되지 않아 원만하게 구족돼 있으니, 단지 망연(妄緣)만 여의면 그대로 여여불이라네"라는 의미이다. 즉 한 생각 망념이 올라오는 즉시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이 뭣고' 하면 육진(六塵)을 벗어나게 되니 이것이 참 수행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오로지 망상을 쉬어 한 생각도 생기지 않는 곳에 도달해야 망정(妄情)의 티끌에 떨어지지 않고 의상(意想)(알음알이)에 머물지 않는 것이니, 그래서 대상과 합(合)이 않되면 무아(無我)인 것이다.

중생은 착각(錯覺)의 내가(我相)있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집착(執着)의 업(業) 속에 생노병사를 집어놓고 윤회를 하는 것이다. 단지 부처가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니, 일초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라, 즉 선가에서는 보살의 수행단계인 57단계를 건너뛰어 곧바로 묘각(妙覺)인 구경각에 이르는 것이니, 일체처 일체시에 한 순간도 놓치지 말고 '이뭣고'가 이어지면 바로 여래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社團法人 大韓佛教 禪教宗

宗正 眞性 法雲

元老議長 龍岩　理事長 華嚴
總務院長 三柱　教育院長 覺明　布教院長 知賢
監察院長 宰性　中央宗會副議長 普覺
組織委員長 導鏡　慈悲實踐會長 光明心
總務部長 光恩　教務部長 法光　財務部長 智雲
教育部長 正圓　布教部長 東海　社會部長 一覺

全 宗徒 一同

佛紀 2562(2018)年
Buddha's Birthday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입종을 환영합니다
불조의 혜명을 잇고 초대법왕 일붕존자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불교를 선도해 나아가고자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본 종단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대덕스님들을 환영합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법당사진, 수계증간부스님 추대장 및 위촉장
■ 입종문의 : 총무원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총무원 : 대전 중구 대흥로 88 다솜타워 7층 전관 / 전화 042)242-1080 / 팩스 042)252-1081